



HANNAH CHOI MINISTRIES

## 건지심의 은혜

“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”(요일3:1, 2)

하나님의 말씀은 도로의 안전 표시판(시119:45)과도 같습니다. 오늘날은 성경말씀의 지식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입니다.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말씀 한 구절을 보고 잠자리에 들면 좋을 것 입니다(시119:116). 잘못 한 일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 속에 기도로 회개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잠드는 것이 축복입니다. (시119:133).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를 통해 교훈과 간증을 가지며 현재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. 오늘의 고난과 닥치는 문제들은 그 결과를 성령님께 맡기고 담대한 믿음과 기도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(시119:116). 그리스도인에게 내일이란 믿음, 소망, 사랑을 의미합니다.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(삼하5:24)께서 우리 앞서 가시며 돕는 천사(히1:14)를 보내셔서 앞뒤 좌우로 우리를 섬기고 있(히13:15). 간구와 기도로 우리의 영혼과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겠고(빌4:6) 순종과 섬김(행20:35)으로 우리의 내일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(눅6:38)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. 선교 보고차 한국을 방문해서 머무는 동안 절친한 권사님이 시골에서 농사지어 보내온 쌀과 잡곡을 콜라 펫트병에 담아 주셔서 권사님들 덕택에 쌀과 부식을 별로 사 본적이 없는데 신기하게도 펫트병에 보관된 쌀에는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. 아무튼 필리핀에서는 엄청난 개미떼를 조심해야 합니다. 쌀통이 따로 없는 저희 집에는 플라스틱 의자에 쌀이 든 자루를 놓고 의자의 네 다리에 물을 담은 물 대접을 각각 놓아 둡니다. 그러면 개미들이 쌀 냄새를 맡고 의자 위로 출정하다가 물 고인 대접에 낙마한 채 쌀자루까지의 사생결단을 한 여행은 끝이 납니다. 만약에 쌀 자루에 개미떼가 들어 왔다가는 하루가 가 기 전에 반쪽짜리 가루가 된 쌀들을 발견하고 경악하며 후회할 것이다. 말씀을 쌀로 탐심(딤후6:9)을 개미로 비유한다면 말씀을 담은 영혼에 탐심이 자리잡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. 탐심이란 사물에 대한 욕심과 욕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. 탐심은 인생의 모든 영역을 파괴하고 부패하게 하며 영혼을 병들게 하고 믿음을 파괴하고 병(잠17:22)을 가져다주는 신앙과 건강의 적입니다. 탐심의 덧(딤후6:10)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파산(유1:11)을 하였습니다.